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5. 9. 30.(화) 14:00	배포	2025. 9. 30.(화)		
담당부서	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	(02-3145-8162)
	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전홍균	(02-3145-7100)
		담당자	팀 장	고병완	(02-3145-7102)

## 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

### 1. 간담회 개요

- '25.9.30일(화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,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,
-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용자 보호, IT안전성,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

####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요

- 일 시 : '25. 9. 30.(화) 14:00~15:00
- 장 소 :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(DAXA 컨퍼런스룸)
- 주요 참석자
  - (금융감독원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, 가상자산감독국장, 가상자산조사국장 등
  - (원화거래소) 두나무, 코빗, 코인원, 스트리미 등 4사 CEO
  - (코인거래소) 돌핀, 바우맨, 포블게이트 등 3사 CEO
  - (보관업자) 한국디지털에셋, 한국디지털자산수탁,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3사 CEO

## 2.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### 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

-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었던 가상자산이 혁신적 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,
  - 국내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“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” 정책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
- 다만,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음

### □ 이어서,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음

#### 【①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】

-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하며,
  - 과도한 이벤트,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보다는
  - 이용자 시각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였음

#### 【②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한 IT안전성 확보】

- 모범규준 마련 등 금융감독원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‘떡통 사태’가 지속되고 있으며,
  - 이러한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대된다면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음

- 이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IT 안전성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
  - 사업자들이 IT 인프라의 구축과 안정성 관리 등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해주기를 당부하였음

**【 ③ 공정·투명한 시장을 위한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 】**

-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,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하면서
  - 이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·인력 확충,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체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였음
- 아울러, 금융감독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, AI·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음

**【 ④ 금융·실물경제 연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만전 】**

- 마지막으로, 가상자산과 금융·실물경제 간 연계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작은 충격이 금융·실물경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
  -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,
  -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하였음
- 더불어, 금융감독원도 사업자들이 리스크 관리역량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였음

### 3. 참석자 발언 요지

-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
  - 이를 위해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,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였음
  - 아울러,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이 이뤄질 수 있는 규율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도 전달하였음
- 이에 이찬진 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,
  - 금융감독원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

[별 첨]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